

## [ 종합·해설 ]



# 접전지 대전·제주 한나라 지지율 급상승

열린우리당 지지율 창당 이후 최악

서울시장 吳, 康 더블스코어로 앞서

■ 박근혜 대표 피습 이후 주요접전지 여론조사 결과 (1.2위/단위:%)

주 요 접전지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5월19, 20일 제주, 대전 21일)		조선일보-한국갤럽 (5월19~21일 조사)		동아일보-KRC (5월20, 21일)	
	오세훈(한)	강금실(우)	오세훈(한)	강금실(우)	오세훈(한)	강금실(우)
서울	53.6	24.6	51.8	24.9	56.7	24.3
대전	39.9	23.0	43.8	24.7	43.4	30.6
경기	44.9	20.7	44.0	24.1	39.3	25.1
제주	32.4	30.8	36.1	27.0	31.3	29.7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무=무소속

11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조선일보와 8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5월19일~21일) 도 비슷하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8.8% 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3월 탄핵 직후의 우리당 지지율 46.8%에 버금간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반대로 우리당은 종전보다 2.7% 포인트 하락한 20.1%였다.

◇ 서울시장 후보 격차 배 이상=최대 승부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동행 인터뷰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23일 오후 보성 조성 5일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 “엑스포 유치·J프로젝트 추진 전남의 운명 바꿔 나가겠다”

23일 오전 9시 화순읍장, 침착한 선비풍의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삼오오 몰려든 시장 상인들은 너도나도 관심을 표명했고 박 후보는 약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박 후보는 손에서 냄새가 날 것이라며 약수를 거부하는 선생 좌판 아주머니의 손을 텁석 잡고서 “이번에 민주당을 살려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순읍장을 한 바퀴 돈 박 후보는 유세 현장에 도착했지만 무소속 군수 후보가 유세 현장을 선점, 좀처럼

“참여정부 결국엔 국민 외면 받을 것”

화순·보성·순천 지원 유세 구슬땀

한 “전남 지역민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

로 잡았다”라며 “이제 ‘의로운 땅’ 전남의 운명을 바꿔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수와 광역·기초의원을 모두 민주당 후보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박 후보는 순천 문예회관에서 방송사 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광양시 죽마동 인근에서 다시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4대 권역별 개발 전략을 수립,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 전남의 운명을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방송 연설 녹화와 라디오 연설 녹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박 후보는 “전남 지역민들의 뜻은 늘 역사와 함께 했다”며 “전남 지역민들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대표 피습 이후 판세 변화

## “남북정상회담 현 시점 바람직”

한명숙총리 “개헌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한명숙 총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같은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움”고 있다. 이를 때 회담이 열려 돌파구가 열리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희망 표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은 어디서, 언제 만나든,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미 열어놓고 있으므로 결국 북쪽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는 경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그 이상 물밀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든지, 이것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대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지금 주제로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은 개헌논의는 정치권 회피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개헌 논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라며 “정부는 결정되는 것에 따라 지원이 있을 뿐 이지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헌논의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희망 표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 총리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힌 게 아니라, “바람직하다”, “희망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쓴 것처럼 전직으로 ‘개인적 기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남북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 만큼은 진전되고 있는데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다. 자칫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내 수입차 업계 럭셔리차량 부문 최초 최단기간 1,000대 판매”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럭셔리 차량 부문 최고의 성장세 기록”

세계를 질주하는 인피니티의 성공신화가 당신에게 이어집니다

지금 인피니티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십시오



세계적인 럭셔리브랜드 인피니티가 귀하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모십니다

• 사. 렌트카 및 퍼세미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품질이 가능한 분단위 투자 자본금을 보유한 분  
• 소비자 또는 사업자 편의성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나 차선 또는 실증하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분  
• 경쟁력 있는 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분  
• 차. 외 광주, 전남지역 | 문의처 : \*광주 강남구 역삼동 대이 플랜타 20층 (화학국부산 02) 2085-8900  
• 문의처 광주·전남 | 문의처 : \*광주 강남구 역삼동 대이 플랜타 20층 (화학국부산 02) 2085-8900

www.infiniti.co.kr

